

한사랑 미션지 그 기소 나스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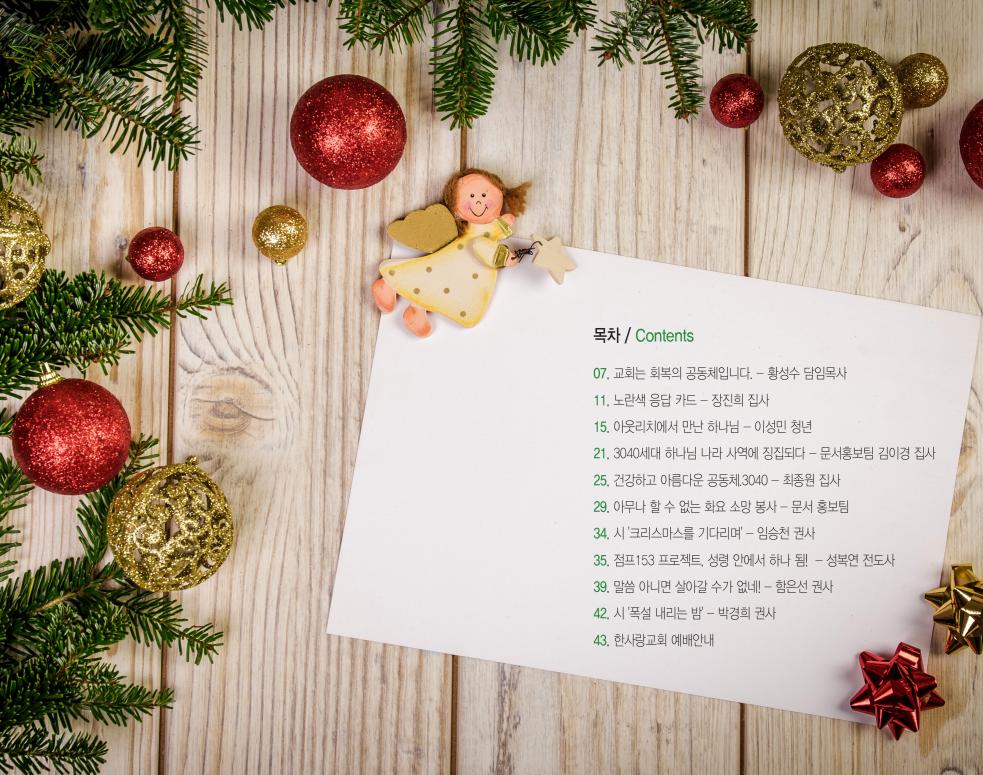


한사랑 미션지, "크리스마스 선물" 을 발간하며...

올해 한사랑교회의 표어가 '회복' 이었습니다. 사순절 새벽기도부터 각 예 배와 153전도 프로젝트, 3040 프로그램, 청년 아우리치, 여름 성경학교, 추수감사주일 잔치 등을 참여하면서 회복을 선물로 받은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사랑 미션지 '크리스마스 선물'에 올해 회복을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진솔한 고백을 기쁘게 써 주신 글의 주인공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이야기가 보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한사랑 감리교회 황 성 수 담임목사

1세기의 로마제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은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덴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올림픽이 열렸던 도시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오고갈 수 있는 항구도시입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철학자들의 고향인 아레오바고도 바로그 도시에 있습니다.

이미 빌립보라는 대도시에서 교회 개척에 성공했던 바울은 데 살로니가로 이동해서, 그곳에서도 믿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 었습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베뢰아에 이르러서는 정말 좋 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용기를 얻은 바울은 계속 남쪽으 로 내려가서 드디어 아테네에 이르게 됩니다.

아테네는 로마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선교에 큰 힘을 얻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개한 교회 개척 작전 제1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대인의 회당과 사람들의 장터, 그리고 철학자들이 모인다는 아레오바고에서 말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결국 디오누시오라는 아레오바고 관리와 다마리라는 여자, 그리고 몇명의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제국의 가장 큰 도시였던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로마서도 있고 고린도전서도 있고 빌립보서, 데살로니가후서도 있지만, 아테네서가 없는 겁니다.

아테네에서는 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울이 혼자였다는 것입니다. 아테네에서의 바울은 혼자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근처에 있었지만, 바울은 혼자서 싸웠고 혼자서 전도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지치고 외로웠던 바울은 혼자 쓸쓸하게 고린도로 내려가죠. 그러나 고린도에는 자존심에 상처 입어 외로운 사도를 위한 주님의 회복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던 바울은 뜻밖에도 고향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입니다.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데, 고린도라는 곳에서 본도 사람들을 만나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게다가 그들의 직업이 천막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과 동종업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들을 만나 위로를 얻고 함께 일하며 바울은 힘껏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와서 바울과 합류합니다. 바로 그 순간을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 는"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잊고 다 시 강력하게 전도를 시작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 를 지켜 주리라."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실패와 회복의 이야기를 보며 배우는 것이 있습 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회복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

한사랑교회는 외롭고 지치고 용기를 잃은 성도가 힘을 내어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며 선하고 정의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 도록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하는 일은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함께 믿는 성도들을 복음 전도의 동역자로 여기며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가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보다 더 어두울지 모르는 우 리의 땅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중보 기도가 필요하시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 요."

1층 로비, 헌금 봉투 놓는 자리에는 분홍색, 하늘색, 노란색의 중보기도 신청 카드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분홍색은 15일 동안 기도를 요청하는 카드이고, 하늘색은 1개월 동안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쓰는 카드입니다. 이렇게 응답된 노란색 카드는 중보기도실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노란색 응답 카드를 볼 때마다 스쳐 가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차혁준 청년이 생각납니다. 어느 해 사순절 새벽기도 기간에 혁준이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구로 고대병원에서는 정상으로 치료 불가하며 어쩌면 어려운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순절 새벽기도 시간에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이어졌고, 중보기도실에서는 매시간 수 많은 사람이 릴레이로 기도한 결과,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 습니다.

또 5년 전, 배 권사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목포에서 장교로 복역 중, 새벽기도 가는 길에 음주 운전자의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은 즉사했고, 배 권사님의 아들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추후 장애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의 위력으로 완쾌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노란카드의 주인공이 되었죠. 그뿐이겠어요. 수많은 성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일처럼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내 아이만 이웃집 아주머니 따라 한사랑교회에 나갔습니다. 어느 날 한사랑교회에 다니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이가 한사랑교회에 다니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게 했지만, 나는 아직 교회에 나갈 때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한 분이 매주 찾아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귀찮아서 문을 잠그고 없는 척했어요. 그렇게여러 번 반복했더니 포기한 듯 한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들고 한 번 더 왔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만 와야겠다고 생각하며 마지막 인사로 케이크를 사 들고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친정아버지는 펀드와 주식에 손을 대다가 큰 손해를 보고 결국 그 충격으로 노인성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 일로 인 하여 친정이 망하게 되자 점차 우리 가정까지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갑자기 교회에 나가고 싶 어졌습니다. 한사랑교회에 전화를 걸어 우리 집으로 전도하러

온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황경숙 권사님이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오게 된 동기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중보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중보기도실은 내가 자주 신청할 일이 많다 보니 관심이 많이 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교회에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나도 예수님을 믿으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는지 의문이 생겨 중보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 후 송대천 부목사님이 오셔서 추도 예배를 드린 후 아버지는 천국에 가셨다고 위로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내가 가장 빚진 곳이 중보기도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한 것들의 응답이 참으로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중보기도실에서 기도로 봉사하고자 작정을 했습니다.

1층 사무실 옆에 중보기도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릴레이로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분홍색 카드와 하늘색 카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에는 중보기도실에서 안나 숲의 어르신들이 주일 예배를 위하여 전폭적으로 기도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는 내가 작정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니 내 아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됐습니다. 나를 닮아서 까칠한 성품이 온순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내가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힘들었던 탓에 아이들에게 내 까칠한 성격을 드러냈던 것이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조금씩 변하자 아이도 점점

변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반사해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말보다 행동이 빠르다고 주위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큰 능력은 없어도 한번 작정한 일은 성실하게 감당하는 성격입니다. 2011년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7년 동안, 중보기도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나를 변함없이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자리를 지킬계획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성도들의 수많은 기도 제목이 노란 열매가 되어 중보기도실, 오른쪽 벽면에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3)





아웃리치에서 만난 하나님 청년부 이성민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이 진짜로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살까? 마치 누구에게 목숨을 빚진 사람처럼 저렇게 매달리며 살수 있을까?

내 눈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은 마치 맹신자 같은 모습이었다. 나는 그것이 정말 싫었지만,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시작된일이라 어쩔 수 없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만 했었다. 교회에 오면 어른들 앞에서 인사 잘하고 친구들 사이에선이미지 관리하며 그렇게 믿음은 없이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녔다. 하나님은 나에게 신화 속의 인물, 성경은 소설책 혹은 도덕책이었을 뿐이다.

그런 내가 중학교 시절부터 부모님 곁을 떠나 홀로 뉴질랜드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누구나 그렇듯이 그곳에서 직면했던 것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외로움이었다. 거기다 작은 시골 마을이라 나 혼자 동양인이었다. 그런 이유로 친구들은 나를 동물원에 있는 동물을 대하듯 놀림과 조롱을 수시로 해댔다.

그럭저럭 고등학생이 되니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인 하숙집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재벌자제, 마약중독자, 불법 체류자, 동성애자, 알코올 중독자 등등…. 그뿐인가? 죽음의 순간도 여러 번 넘겨야만 했다. 오토바이와 정면충돌한 사고도 당했고 쇠파이프로 뒷머리를 맞고 죽을 고비도 있었다. 철로 된 미끄럼틀에 머리를 박아 뇌진탕이 왔던 일도 있었다. 위험한 순간들이 수없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피할 길을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서 있게 해 주신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나는 성인이 되어서도 하루하루 희망이 없는 날들을 보내야만 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삶처럼 느껴졌다. 의욕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 당연히 뚜렷한 목표가 있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마음이무너지니 몸도 저절로 망가지기 시작했다. 심한 스트레스로 끊임없이 먹다 보니 123kg이라는 몸무게가 되고야 말았다. 그런내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하셨을까?

"성민아! 나랑 이번 사순절 새벽기도에 같이 나가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봐야겠 다는 마음을 가지고 반신반의로 어머니를 따라 새벽기도에 나 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새벽기도에 나간 나에게 하나님은 이슬비에 옷 젖듯이 살며시 찾아오셨 다.

사순절 새벽기도 이후 황재홍 장로님의 권유로 거부감 없이 청년부에 소속되었다.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사람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2018년 청년부 여름 수양회, 남해 아웃리치에 대한 이 야기를 듣고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아웃리치 출발하기 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달라는 기도도 했다.

남해에 도착한 첫날에 팀 모임을 가졌다. 우리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드렸다. 여름날 겹겹이 닫아 놓은 창문을 하나씩 열어젖히는 시원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다. 남해 식구 중 한 분이신정장자 시인의 시를 들으며 내가 아웃리치에 오면서 기도했던 내용과 똑같다는 것도 발견했다. 입고 있는 육체의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자매라는 마음이 들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살아 왔던 내 자신이너무 창피해서 울컥했다. 밖으로 뛰어나와 혼자 펑펑 울면서기도했다

저녁 설교 말씀의 본문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욥기 23:10)말씀이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 말씀은 어머니께서 나 대신 뽑아 주셨던 우리 한사랑교회 2018년 약속의 말씀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우선순위를 바로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다음날, 남해 식구들과 글램핑장에서 물놀이를 하였다. 남해 식구들, 사회 복지사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저녁 시간 사회복지사와 함께 묵상하는 자리에서는 고철화 선생님께서 본인의 과거 이야기를 해 주셨다. 하나님을 외면하며 돈만 바라보고 사회생활을 하다 큰 병에 걸렸고,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간증이었다. 그 이후 하던 일을 정리하고 희생의 마음으로 사회복지 일을 하였고, 지금은 예전에 느끼지 못한 행복과 보람을 느끼며 산다는 내용이었다.

오후에 미술관 관람이 끝나고 이동해야 하는데 셔틀버스에 좌석이 없어 미술관에서 기다리게 되었다. 그때 같이 앉아 계셨던



그곳 소망교회 집사님에게 사회복지 일에 대해 여러가지를 물어봤다. 조금 후, 소망의 집 사무국장님이 나를 픽업하러 왔다. 차 안에서 사무국장님께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 꼼꼼히 물어 보았다. 내가 사회복지 일에 관하여, 또 사회복지 법인에 대하여이렇게 묻는 것은 이유가 있었다.

몇 년 전, 어머니는 내 앞으로 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다.

"성민아! 이 땅은 네가 사회복지 일을 하라고 서원한 땅이라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땅은 돈이고 돈이 내 미래를 행복하게 보 장해 주는 것이라 여긴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에게 준 그 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하다니...하나님은 내 행복을 가로채는 것만 같았다.

어제저녁 사회복지사와 나눴던 묵상이 생각났다. 그분의 말대로 진짜 행복이란 무엇일까? 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 나는 마지막 자존심을 세웠다. 아니 어쩌면 시험이었다. 나는 사회복지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기도를 했다. 그나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땅이 행복이었는데 왜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고계실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나의과거를 떠올리며 하나님을 원망했다.

"내가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며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습니까!"

그 한마디로 부족했다. 또다시 절규하며 울부짖으며 물었다. "그때는 왜 절 외면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새벽기도 시간에 들었던 설교 내용인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 생각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셨다는 말씀을 해 주시며 위로해 주셨다. 나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했다.

아웃리치를 다녀온 이후 나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변했다. 사회복지를 하는 친구를 우연히 만나 도움을 받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한 걸음씩 걷고 있다. 내가 그동안 행동심리라는 공부를 했었다. 서적들도 많이 읽었다. 그것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차근차근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마음이가벼우니 몸도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현재 몸무게를 31kg 감량하였고 모든 일상이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고백을 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 속에서 고난은 단련으로, 축복은 감사로 여기며 살기를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은혜에 빚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를

또 소망한다. 아웃리치를 통해 나의 눈높이에 맞게 만나주신 나의 하나님, 물질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아웃리치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나의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욥기 23:10)





10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40세대 성도들이 교회에 집결했다. 인원을 파악하고 10시 30분에 출발한 일행은 12시에 덕평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었다. 오후 3시, 드디어 강원도 평창켄싱턴 호텔에 도착했다. 세상일에 바빴던 손을 잠시 내려놓고 성도들은 자연에 몸을 맡긴 채, 이 시대 청장년층에 보내는 하나님 메시지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산책을 했다. 이날참석인원은 50가정 200여 명의 성도이다.

프랑스풍의 아름다운 미니정원으로 꾸며진 이 공원은 퐁네 프의 다리를 시작으로 쥬베흐 다리까지 넓고 다채롭게 펼쳐져 있었다. 울창한 숲과 개울, 화이트 가제보 언덕 전망대, 생각의 길, 자수 정원, 돌 징검다리, 모래놀이터, 분수대, 글램핑장, 동물원 등이 조화를 이뤄 천상의 정원 한 자락이 사뿐히 내려 앉은 듯했다.

부목사님들이 주체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해 주었고, 여기에 청장년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점이 가장 두드러지 게 보였다. 행사를 지켜본 황성수 담임목사님은 일하는 분들 이 체계적이고 창의적으로 해서 믿고 맡길 수 있었다며 그동 안 많은 사역을 해왔지만, 이번처럼 마음이 편안했던 적은 없 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반적인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온 장유성 목사님, 참여 가정이 너무 적지 않을까 우려를 했지만, 신청 오픈 날, 조기 매진이 되어 정말 감사했다고 했다.

지난 5월부터 기획단을 꾸려 행사 준비를 위한 3차에 걸친 회의를 했다. 3040세대, 육아 부담이 있는 가족들의 절실한 니즈가 뭘까? 고민하며 기도하다, 그것이 '부부간의 소통'이라고 생각했다.

1차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2차, 3차까지 철저하게 준비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청장년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장 목사님은 말했다.

작년 여름부터 새로운 리더들을 키우자는 생각을 구체화했던 황성수 목사님, 3040세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시다. 한사랑교회 담임목사로서 앞으로 어떻게 성도들을 섬겨 나가야할지, 이분들과 속내를 터놓고 도움을 요청하자는 계획이셨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중 클래스들이 돌아가고 카페 등에서 지역사회와 소통이 활발해지는 것을 보며,이제 선배 리더들의 자리를 3040세대들이 채워나가야 할 것같다고 담임목사님은 말씀하셨다. 아울러 이들로 인해 교회분위기가 더 밝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이셨다.

담임목사님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한사랑교회를 통해 지금 이 시대에 무언가를 하시고 싶으신가 보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는구나! 3040세대 이분들이 바로 하나 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징집 대상이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한다. 저녁 식사 후 열린 홍장기 목사님의 'Hug&부부 세미나' 는 3040 젊은 부부들에게 유익한 내용이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가족들은 "부부간에 스킨십을 더 많이 해야겠다. 관련된 책도 꼭 사보고 싶다." 라며 호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어서 언제들어도 새롭고 은혜로운 담임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겸손, 선교' 라는 주제는 너무 감동적이었다. 그날 밤, 은혜 받은 3040 성도들의 기도가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어느 행사든지 보석 같은 숨은 봉사자들이 있다. 강의 시간 동안 아이 돌보미 봉사를 자청한 총여선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노고가 행사를 깔끔하게 진행되도록 도왔다. 뛰노는 아이들을 쫓아다니느라 장거리를 달린 것 같다고 하면서도 기쁨의 미소가 그 얼굴에 가득 고였다.

'조별 소개 영상' 시간에는 개성이 팡팡 넘치는 구호와 3040 특유의 위트와 문화적 연대감이 표출되어, 보는 이들에게 박장대소를 자아내게 했다. 자신들이 직접 만든 '조별 소개 영상'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하는 김경수성도의 얼굴에는 행사 내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다음날, 호텔 뷔페에서 푸짐한 아침 식사를 하고 강당에서 '명랑운동회'가 이어졌다. 장애물 달리기, 박 터트리기, 줄다리기 등의 경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어릴 적 운동회를 하던 천진난만한 모습이었다. 피카추 인형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담임목사님의 깜짝 해프닝과 너무 열심히 잡아당겨 줄이 끊어진 줄다리기는 모두에게 오래도록 곱씹을 소중한 추억의 한장이 됐다.

참가자들은 1박 2일이 너무 짧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고 내년에 다시 오고 싶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행사 후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내년에도 이런 행사가 있다면 전원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행사의 참가자 연령대는 30대가 44.4%고 40대는 61.1%로 많았다. 또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으로 목사님 강의를, 다음으로 명랑운동회, 조별모임, 부부 세미나 순으로 꼽았다.

행사를 마치고 가족과 다정하게 손잡고 집으로 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니, 그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 고 구름 위에서 사뿐히 걸어가는 것 같았다.

취재·글 김이경 집사





3040

가족 캠프를 다녀와서

최종원 집사

우리 가정은 한사랑 교회에 온 지 6년이 되었지만 속회나 봉사활동에서 알게 된 몇 분들만 알고 있었고 모르는 3040가정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번 가족 캠프를 통해 우리 가정은 더 많은 3040가정을 알아가고 교제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3개의 버스에 나누어 우리 3040가정은 강원도 평창으로 출발했습니다. 휴게소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도착한 평창 켄싱턴호텔은 정말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맑은 공기로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정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조별로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또 아이들은 맘껏 뛰놀기도하며 도시에서의 삶에 벗어나 여유를 느끼며 진정한 쉼을 느낄 수 있는 오후를 보냈습니다. 숙소도 가정마다 한 개의 방을 배정해 주셔서 어린 자녀들이 많은 3040세대를 위한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우선 조별로 모여서 각자 카드 한 장씩을 받아 카드에 적힌 질문에 대답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과 아내, 친구 그리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즐거워하며 친밀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것만 같았던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조별로 삶을 나누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홍장빈 목사님의 본격적인 부부 세미나가 시작되었고 성숙한 부부관계, 갈등 중인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나 자신의 에너지, 활력이 충만해야 하는데 이는 남편이 아내의 활력을 위해 아내는 남편의 활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 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남편은 아내가 듣고 싶 어 하는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삶에 적용할 수 있 도록 실습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서 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또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에 대해 배웠 습니다.

황성수 목사님의 심야 설교에서는 선교의 중요성과 방법 그리고 3040이 교회에서 허리 역할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일과를 마치고 호텔 밖 정원에서 아름다운 불빛 사이를 거닐었고 이후 불빛이 꺼진 한 밤에는 밤하늘의 은하수와 별 동별을 보게 되었는데 초등학생 때 산속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가서 밤에 담력 훈련을 받을 때 별동별을 본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때의 제 나이와 비슷한 나이인 우리 아들과 함께 별동별을 보게 되니 신기하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 푹- 잠기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명랑운동회에서는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모두가

웃고 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애물 달리기, 박 터트리기 등 다양한 경기들을 마치고 줄다리기가 열렸는데 남자줄다리기 때는 얼마나 열심히 당겼는지 줄이 끊어졌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진행하시던 분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열정 있는 3040의 모습이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희망인 것 같아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안아줌(hug)을 주제로 한 이번 3040가족 캠프를 통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가정이 쉼을 얻을 수 있었고 충전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과 함께 쉬게 하시고 안아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곳곳에 흩어져있던 3040들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되고 교제할 수 있는 소중한시간이었습니다. 캠프를 마치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교회의 허리로써 교제와 봉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캠프에 다녀온 후 캠프에서 함께했던 분들을 교회에서 보니 왠지 더 반갑고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또 교회 봉사에도 함께하고 자주 교제하며 더 친근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한사랑교회에서 3040가정들이 사랑과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길 기도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화요소망 봉사



주일 3부 예배 후, 화요소망팀에서 봉사하는 신애경 권사를 포레스트 카페에서 만났다.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없는 눈빛이었다. 그래도 바쁜 약속이 있는 가운데 정성껏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화요소망 봉사를 한 동기는 그 당시 부숲장인 최현숙 권사의 권유로 한번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봉사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보다 팀원들 이야기와 특히화요소망 봉사 팀장인 김애희 권사의 이야기를 주로 했다.

매주 화요일마다 한사랑교회에서 200~300명의 불우한 어르 신들에게 점심과 교통비 그리고 절기에는 작은 선물을 드리는 일이다.

이날, 화요소망봉사팀은 어르신들 점심을 준비한다.

화요소망봉사팀의 김애희 팀장은 경비 절감을 위하여 전날 직접 장을 본다고 한다. 팀원들은 당일(화요일) 오전 8시에 나와서 오후 2시까지 봉사를 한다. 보통 17~20명이 봉사를 하는데 그중에 5~6명의 봉사자가 음식을 만들고, 채소 다듬는 봉사자 5~6명, 설거지하는 봉사자 5~6명, 홀 서빙하는 봉사자 9~10명, 그렇게 분야를 정하여 봉사한다고 했다.

힘든 일은 없었냐고 문자 특별히 힘든 것은 없었지만 신애경 권사는 채소를 자르는 일을 했었는데 팔목 관절이 안 좋아 봉사를 그만둔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봉사를 하지 않으니 마음이 불편하여 다시 한다고 했다. 신애경 권사는 예전처럼 채소를 자르는 일은 못 하고 홀 서빙하는 일을 돕는다고했다. 채소 자르는 일에 비하면 팔목은 괜찮지만, 그 대신 어르신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계속접하다 보니 지금은 적응되어 냄새나는 것은 괜찮다고 말했다.

화요소망봉사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신애경 권사는 주저하지 않고 팀원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김애희 팀장의 섬 기는 리더십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말했다. 팀원들이 지쳐 보이 면 모여서 영화도 보고, 어느 때는 음식 하나씩 준비해 단합대 회도 하면서 세심하게 팀원들을 챙기며 사기를 북돋아 준다고 했다. 그래서 신애경 권사는 자신이 화요소망봉사 팀 소속인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봉사한 지 7년이 됐는데 앞으로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봉사하겠다고 했다. 약속이 있는 모양이다. 일어서면서 정말 음식을 맛있게 만든다고 화요일에 점심 식사하러 오라고말했다.

화요일이 되자 봉사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한 신애경 권사가 떠올랐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점심시간에 맞춰 교회에 갔다. 서둘러 왔는데 벌써 식사를 마치고 가는 어르신들이 보였다. 5층 식당에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어르신들이 서로 밀치며 쏟아지듯 내리더니 열차 시간을 놓친 사람들처럼 급히 뛴다. 무엇인지모를 휑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 주인들을 놓친

냄새가 그 안에서 방황하다 나에게 찰싹 달라붙는다. 5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박 목사님의 안내에 줄을 서 있는 어 르신들이 피난민처럼 장사진을 이루었다. 전쟁터였다.

식당을 바라보니 아직도 식사 중인 어르신들이 보였다. 안으로 들어갔다. 배식구 앞에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머리를 들이 대며 아우성친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 가까이 가봤다. 주방 안



에서는 흰색 블라인 드가 내려져 봉사자 들은 잘 보이지 않았 지만 내려진 블라인 드를 잦히며 음식을 더 싸 달라고 아우성 친다. 봉사자들이 빈 밥솥을 보여줘도 막 무가내다. 그러더니

서로 싸움을 한다. 남은 음식물을 봉지에 싸준 것을 가지고 서로 내 것이라고 싸우는 할머니들 사이에 쏟아진 음식물이 바닥에 너저분하게 떨어진다. 할아버지 한 분이 떨어진 음식물 위에 휴지를 덮으며 말한다.

"점심 한 끼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줘도 끝이 없어. 에이~"

그제야 상황 판단이 된 나는 어깨에 메고 있던 카메라를 살 며시 가방에 넣었다.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환하게 웃는 어르신들 모습을 찍으려고 가져온 카메라다. 내 기대를 벗어난 현실, 그래서 밖으로 나와 서성거리며 생각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봉사구나…' 지금쯤, 어성경 강의를 하는 강송진 권사가생각이 나서 3층으로 내려갔다. 마침 강의가 끝난 모양이다.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다.

강 권사가 나에게 5층 식당에서 식사할 거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은 했지만 아까 어르신들이 싸우면서 바닥에 흘린 음식물들이 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뒹굴고 있었다.

5층 식당에 올라가니 아까와는 달리 어느새 깨끗하게 정리되어 놀라웠다. 순식간에 치워진 식당보다 더욱 놀란 것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저기서 웃음으로 합창하는 봉사자들의 행복한모습이었다.

"양파 까는 일이 좋아서 봉사해요."

눈물 쏟아 내는 양파 까는 일이 좋다고 말하는 김지연 권사 가 궁금했었는데 마침 주방에서 까르르 웃고 있었다.

"아까 어르신들 싸움에 정신이 없던데 괜찮으세요?" 김지연 권사가 내가 묻는 말에 웃음으로 대신 답한다. 오히려 그렇게 물어본 내가 부끄러웠다

오랜 세월 단 한 번도 다툼이 없었다고 말하는 팀의 위력은 무엇일까? 역시 소문대로 김애희 팀장은 말없이 팀원들의 식사를 챙기는 자상함이 포착됐다. 그런 팀장아래 불평이 없는 팀원들은 저마다 그 입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튀어나온다. 그리고 축복받으려고 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봉사했더니 두루두루 축복받고 산다며 기뻐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간식을 내는데 거의 매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나에게 말했다.

"하나님! 나도 떡 하고 싶어요."

3년 전, 신애경 권사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했다. 다른 팀원들이 좋은 일이 생겼다고 간식을 낼 때마다 내심 부러웠기 때문이다. 그해 딸이 응시 원서를 낸 대학교마다 불합격 통지를받고 답답했다고 말했다. 그다음 해, 여기저기 응시 원서를 또 냈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대학교에서만 합격 통지가 왔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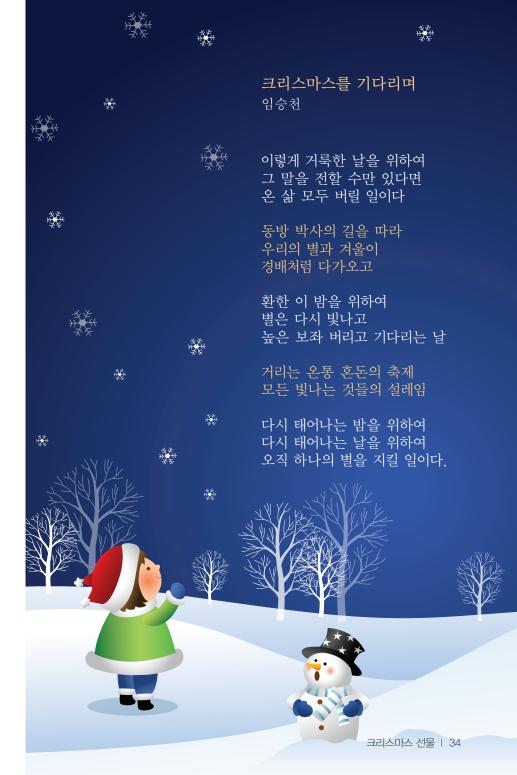
했다. 하나님은 신 권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기쁜 마음으로 떡을 주문하여 팀원들과 나누었다고 했다. 이렇게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고 슬퍼해 주는 팀원들이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40대에서부터 60대까지 연령대는 달라도 함께 어울려 있는 모습에서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다. 주방에서 식사 준비로 분주하게 보내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는 식탁 앞에 앉아 도란 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은 마치 딸 부잣집 자매들 같았다.

탐마다 다 색깔이 있다. 화요소망팀의 색깔은 무지개색 같다. 빨주노초파남보의 색깔이 다 나타나지만 튀지 않고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무지개색, 색깔만 있으면 삭막할 텐데 그 뒤로 빛이 무지개를 덮어준다. 그래서 더욱 평안과 사랑이 느껴진다. 화요 소망팀의 역할 또한 무지개 같다. 비 온 뒤에 아름답게 하늘에 나타나서 위로해주는 무지개처럼, 배고픈 어르신들에게 매주 한 끼의 식사를 정성껏 대접하며 위로와 소망을 담아드리고 있다.

문서홍보팀 - 인터뷰 협조 신애경 권사







저는 서른다섯 살에 예수님을 만난 늦깎이 신앙인입니다. 그당시 친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 간절함으로 기도하다 보니 곧바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친정과 시댁 가족들의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편을 위해기도할 때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세 번씩 3년 동안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7개월 만에 남편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아직도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었기에 성도들의 가족 구원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2018년 봄, 담당목사님과 대심방을 하면서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심정이 계속되던 중, 교회에서 점프 153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또는 하나의 숲 공동체에서 5개월 동안 3가지 영역(가정, 일터, 이웃)에서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저에게 점프 153 프로젝트는특별했습니다. '호렙산 각 가정의 가족 구원'을 위해 딱 맞는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어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담당 목사님을 중심으로 리더들과 점프 153의 방향을 의논한 결과, '무한리필 콘서트'로 정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리필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 콘서트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5개월 동안 불신이나 실족된 가족들과 이웃 등의 전도대상자들을 위해 중보하며 열심히 섬겨서 무한리필 콘서트에 데리고 오는 미션입니다. 우선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전도대상자의 명단을 써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호렙산 단체 톡에 공유하며 앞으로 나아갈 바를 꼼꼼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리터들의 연합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는 날로 뜨거워져 갔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됨과 동시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동산

지기들은 각 동산의 숲장들을, 숲장들은 각 숲의 나무들을, 숲 나무들은 각 전도대상자 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중보 했습니다.

4월부터 논의된 점프 153 프로젝트는, 5월에는 전도 대상자 품기, 6월에는 동산별 연합 기도, 7월부터는 호렙산 전체가 밤 10시에 전도대상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연합

에 전도내상사들의 영혼 구원들 위해 연합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100여 년 만 에 찾아온 폭염보다 우리들의 기도가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8월부터는 더 바빠졌습니다. 심방을 통해 성도들의 영혼 구원 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도대상자들의 상황이 어떠 한지, 잘 섬기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등 조심스럽게 나누 고 함께 기도하며 격려했습니다. 은혜로운 만큼 영적인 방해도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아프거나 그들의 집안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또한 연합예배를 통해 성도들과 콘서트의 진행 상황을 나누 고, 공동기도문으로 뜨겁게 합심기도를 했습니다. 갈수록 성 도들과의 협력이 깊이 이뤄지며 우리는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막막하기만 하던 콘서트가 점점 더 확실한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콘서트를 위해 공연 팀, 데코 팀, 식사 팀, 이벤트 팀, 안내 팀, 중보 팀 등 본격적으로 팀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팀별로 준비해 갈 때 우리는 '일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 라고 나눴습니다. 리더들은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통해 먼저는 성도들의 영적 회복과 하나 됨을 위해, 다음은 전도대상자들의 영혼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콘서트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아이디어를 마음껏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초대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공연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저녁 메뉴가 좋을까?' '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꾸밀까?' '어떤 선물이좋을까?' 뜨거운 행진이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몇몇 동산지기들은 불신 가족과의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런 일들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서로 손잡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함께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사랑하는 리더들의 눈물 나는 헌신은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었겠지만 서로 보듬고 맞추며 나갈수 있었던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깊어지며 신앙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가깝게 또는 먼 곳에 계신 가족들과 지인들에게서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갔다는 소식이 하나둘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소식들을 공유하며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나왔습니다. 이것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손을 잡고 한마음이 되니 주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대신자뿐만 아니라 호렙산 성도를 포함해서 100여 명을 예상하고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 적게 올까 봐 염려가 됐습니다. 그러나 콘서트 날이 임박하면서 참석예상인원이 200명 이상이 된다고 하니 오히려 혼잡을 대비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슴이 설레였습니다. 하나님이하실 일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 같은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10월 1일 콘서트 날이 밝았습니다. 교회 1층 로비에 저녁 식사를 위한 세팅을 했습니다. 식탁 위에 예쁜 탁자보와 꽃까지 곁들여지니 그야말로 멋진 레스토랑이 됐습니다. 5층 식당에서는 정성껏 갈비탕을 끓여내고 맛있는 반찬들을 만드느라 분주했습니다. 안내 팀은 초청자들의 가슴에 붙여질 이름

표에 이름을 적으면서 북적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침까지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가족이 갑자기 교회에 나타날 때는 울컥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이름표가 붙여질 때마다 하나님도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리라 믿었습니다. 80명의 전도 대상자를 포함해서 236명이 콘서트에 오셔서 공연장이 꽉 찼습니다.

공연이 시작됐고 어색하게 들어섰던 초대 손님들의 얼굴은 준비한 공연을 모두 보면서 점

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흥겨워 손뼉도 치며 눈물도 흘리면서 공연에 함께하는 모습은 천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무한 리필해주시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콘서트를 통해 전도 대상자들과 호렙산 성도들은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12)

37 | 한사랑 미션지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은선 권사

딸의 골프 시합이 있어 딸과 함께 지방에 내려갑니다. 무엇보다 가방부터 먼저 챙깁니다. 가방은 그전보다 큰 것으로 챙기는 이유는 성경책과 어성경 내비게이션북과 워크북을 넣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어? 성경이 읽어지네! 통독 프로그램"에 푹 빠져 있습니다. 딸의 시합을 기다릴 때, 차 안에서 성경을 읽으며 날마다 주어지는 통독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니, 눈물도 흘리고 기쁨도 느끼면서 자동차 안에서 저만의 부흥회를 합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힘을 주셨고 소망 가운데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둘째 딸이 프로골프선수가 되자 자연스럽게 저는 매니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로골퍼 생활은 겉으로 보기와 다르게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인내가 바닥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 저 그만하고 싶어요.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라고 불평하며 어린아이같이 울때도 많았습니다. 막상 시합날이 되면 저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은 얼마나 간절히 딸의 출전 성과를놓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중적인 자신을 볼때 도대체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스케줄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저는 분명 저의 인생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정체성의 방황이 이어지고, 또 기도로 회복하고 방황과 회복을 반복하며 저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러자 더욱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교회 주보에 '어? 성경이 읽어지네! 통독 프로그램' 안내를 보고, 저는 신약 반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신약의 관점을 강의를 통해 배우게 되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우물 안 작은 세상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는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생기게 됐습니다. 나의 안경을 내려놓고하나님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지난날, 딸과 함께 힘들고 고민했던 그 문제들이 깨끗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상의 인물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 제자들, 바울 등등. 그들은 모두 훈련을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놓치지 않는 훈련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훈련을 겪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기도 훈련, 믿음 훈련, 인내 훈련, 포기 훈련을 제게 시키셨던 하나님! 연약한 저를 딸의 길을 돕는 자로 세우셔서 먼저 단련시키시고 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훈련은 사명을 위한

것임도 알게 됐습니다. 바울의 훈련은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처럼 저도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골프계에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도록 중보 기도하는 사명, 딸을 믿음으로 세우는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을 깨닫게 되니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어 성경' 통독을 하면서 체험한 일이 더 있습니다. 시합을 마치고 지친 딸을 차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운전 중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길을 나섰기에 졸음이 왔습니다. 저도모르게 깜빡 졸았나 봅니다. 대형사고가 날 뻔했던 상황에서하나님은 딸과 저를 털끝 하나 상치 않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기적이었습니다. 바울을 풍랑 이는 배에서 지켜주신 것과 같은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읽고살아가니 더욱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저를 '어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 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6~17)





41 | 한사랑 미션지

한사랑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1 = 11			
예배	시간	장소	
주일 1부	오전 7시	대예배실	
주일 2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주일 3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주일 4부(청년)	오후 2시	대예배실	

주일 1부 예배(간결) — 여러 다양한 부서(교회학교, 식당, 주차 등)에서 섬 김이로 봉사하시는 분들과 출근, 출장 등의 사정으로 일찍 외부로 나가 셔야 하는 분들,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디자인된 예배입니다.

주일 2부 예배(전통) — 경건성을 갖춘 전통적인 형식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디자인된 예배입니다. 설교자와 사회자는 목회자로서의 경건과 구별을 상징하는 성의(聖衣, 가운)를 입고, 오르간 연주에 맞추어 입장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통적 형식이라는 견고한뼈대에 진정성을 추구하는 예배자들의 경건성이 어우러진 예배입니다.

주일 3부 예배(현대-자유로움) — 고정된 형식을 벗어나 현대적인 음악과 도구들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예배입니다. 어린이에서 청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주일 4부 예배(청년) —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표현하고 자 하는 청년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고민 많은 청년들. 이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함께 간직한 모든 청년들을 위해 디자인된 예배입니다. 젊음의 열정과 패기, 그에 못지않은 깊은 고민과 지혜가 묻어나는 청년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주중 예배

1 0 411-11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5시/오전6시	대예배실/3층 세미나실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시30분	대예배실
금요부흥회	금요일 오후 9시	대예배실
화요소망예배	화요일 오전 11시	3층 중고등부실
자녀를 위한 기도회	목요일 오전 10시30분	3층 중고등부실

새벽기도회 -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매일의 예배입니다. 묵상지 '생명의 삶'의 본문을 중심으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합니다.

수요예배 - 주일 후 삼일이 되는 저녁에 함께 모여 예배했던 한국 초기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일주일의 중간에 하프타임처럼 말씀을 깊이 살 피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금요부흥회 - 금요일 밤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상의 부흥회로 모여 뜨거운 찬양과 깊이 있는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예배입니다. 주일예배는 금요부흥회부터 시작됩니다.

화요소망예배 - 독거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세운 선교적인 예배입니다. 코이노니아(교제)의 구성은 '예배 - 식사 나눔 - 구제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 —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관심과 고민인 자녀들. 이들을 부모보다 더 관심 갖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아가고, 함께 기도하는 예배입니다. 부모가 자라는 만큼 자녀들도 자랍 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라 가도록 돕고 기도하는 예배입니다.

교회학교 주일<mark>예</mark>배

예배	시간	장소
영아부(~4세)	오전 11시	4층 영아부실
유치 1부(5-7세)	오전 9시	2층 유치부실
유치 2부(5-7세)	오전 11시	2층 유치부실
윙윙부(초1-6)	오전 9시	2층 윙윙실
유년부(초1-3)	오전 11시	2층 윙윙실
초등부(초4-6)	오전 11시	6층 초등부실
중등부	오전 11시	3층 중고등부실
고등부	오전 9시	3층 중고등부실



한사랑 미션지

펴 낸 곳: 한사랑교회 문서홍보팀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3

전 화 : 02-2648-5244 홈페이지: www.newhsr.org 초판인쇄: 2018년 12월 20일



한사랑교회 Hansarang Methodstr Church